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밖에서 찾으면 ‘일체개공’ 알 수 없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이며 공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라는 것은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주인공의 줄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 줄은 근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을 타고 바위를 올라가는데 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도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잡지 않으면 언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줄은 잘 나고 높은 사람에게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하다 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생명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몸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 것도 없고 나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본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치를 아신다면 체가 없는 나는 물에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습니다. 설사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틀이 아닌 까닭에 오히려 건지게 되죠. 이런 것을 살아 생전에 다 알아야만 죽어서도 제 길을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그냥 보살로서 행해 나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상세계의 부처님 도량에 한마음으로 합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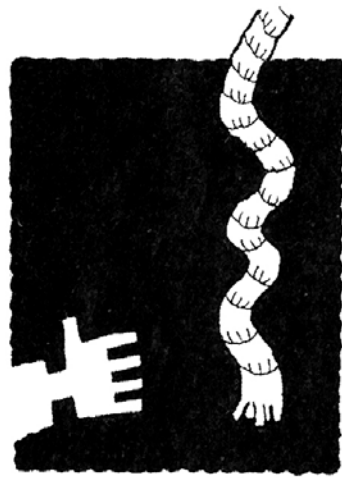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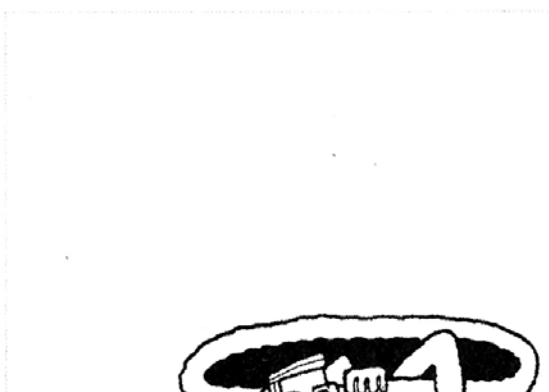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욕심·집착에 매여 있어요 벗어나 보세요 시원합니다”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놓지 않고 불성이 있으니 불교라고 했죠. 그리고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이며 지금 살아 가는 것, 즉 사자들이 살고 죽고 하는 생활이 전부 그대로 그냥 불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내 몸속에 있는 전체 생명들도 다 공해서 한 개체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개체로 사는 내가 없다면 상대가 전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줄타기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잡지 않고, 또 잡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잘하라, 믿어라.’ 이렇게만 나간다면 언덕 위의 맛을 못보고 항상 심부름꾼 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처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찾았다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도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꼭 자기 내면으로 관해서, 모두가 공한 줄을 알고, 나조차도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라고 그러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지옥고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무서워하니깐요. 자기가 체가 없는 줄도 모르고, 관습과 욕심 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첫 단계에 지옥고를 건너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세 번째 불기둥은 더욱더 건너지 못합니다. 지옥고에서는 거기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강에서는 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가들은 오백생을 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더라면 배를 기다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참나에 넘을 것을, 그걸 풀라서 없는 배를 기다리니 그 기막힌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불기둥은, 지금 이 허공에도 에너지가 있으니 그 불은 뜨겁지 않은 불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살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발동하면 불에 타 죽을까봐 불기둥을 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어” “우물에 빠졌으니 자기가 빠져 나와야”

습니까? 다 현재의식으로 마음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빛보다 빠르고 체가 없어 뜨겁고 아프고 걸리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마음에서 먼저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가. 우리가 흔히 ‘피안의 언덕’이란 말을 쓰는데 ‘저 언덕이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데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걸 내가 못하지. 여기에는 정말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모른다 할 때 그게 도예요. 모르는 게 진짜 도라니까요. 아는 자리가 끊어진 그 자리요, 저 언덕이 뭐 나를 떠나서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저 언덕도 있고 이 언덕도 있던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오로지 내 근본의 줄만 믿고 그 줄을 잡고 가야할텐데 옆에서 무슨 소릴 하면 금방 거기에 속기해 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화해서 나뉘다 하더라도 돌이 아니게 보고, 거기서만이 에너지 배출하니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작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알아야 죽은 뒤에 알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는 부딪치니까 부딪치는 아픔을 알고 슬기로운 지혜를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죽게 되면 더하고 덜함도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쌓고 고쳐나가고 물리가 터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몸 떨어지면 공부할 수 없어요. 정신계만 있고 체가 없어도 아니되고 체만 있고 정신계가 없어도 아니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동안에 마음이 ‘아, 이젠 가도 녀석하겠구나! 이젠 내 몸이 옷을 벗어도 괜찮겠구나!’ 할 때,

자동적으로 차원과 지위가 주어져요. 자기가 산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조금 더 으러면 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삶이 보람이 있고 적어도 허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공부를 아니하고 기본적으로 ‘몸을 닦아라’ 한다면 본래 자리가 닦을 것도 없는데 그건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정물과 깨끗한 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없고, 없는 데서

“자신은 자기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믿어야죠”

지금 한발 한발 딛고 가고 있으며 그 딛고 가는 것마저도 공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진리가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 내가 말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자부처이자 제불인드도 말입니다. 자부처를 알면, 제불이라는 것은 모두를 한데 합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을 하고 가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참회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방망이가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또 인연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치러 들어오니 알겠습니까? 길을 지나다날 때도 무명 영가들이 넘비는 것도 알 수 없죠. 이런 것 전부 절대 ‘우연’도 없을뿐더러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인연이 자기한테 할나할나 질서정연하게 오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내 안에서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관하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예기한 적이 있지만 참나의 근본 불성은 바로 불성입니다. 그 불성은 ‘자신’이며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56)

내가 보살이 되면 누구라도 보살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응해서 나를 받아 주겠는가. 내가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어떤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과 같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여겨질 때에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내 모습이지!’ 하고 한생각을 돌려 보라. 추억 걸 진화의 과정에서 나라고 하여 어찌 고상한 길만 걸어왔겠는가. 온갖 모습을 다 해보았을 것이니 상대가 비록 하찮게 보인다 하여 ‘너는 아니다’라고 버릴 수 있겠는가. 물에 물을 섞듯이 상대와 하나가 되려 하거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상대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이른바 열린 마음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줄때,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반대로 내가 내 주장을 고집할 때, 상대방을 꾸짖거나 나에게 강요할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 거기에 강요된 순응이나 복종이 있을 뿐 물과 물이 섞이듯이 풍조, 공감, 융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의 수순일 뿐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져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며 공감대가 넓어져가 돌이 하나되는 동조(同調)가 이뤄지는 것이다. 고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주상보시의 첫걸음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라도 같다.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야 그대 내가 된다. 내 몸 속에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



는 그의 일부가 된다. 고로 그도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마음과 마음이 섞인다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그이겠는가. 그냥 한마음인 것이다. 내가 보살이 되면 남도 보살이다. 내가 나의 고정관념, 아상, 아만 따위를 훌훌 털어버리게 된다면 남도 내 앞에서는 절로 그렇게 된다. 내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무치게 사랑한다면 상대도 절로 그렇게 된다. 내 마음이 항상 자비관으로 흘러 넘치면 상대도 절로 자비관을 갖게 된다. 고로 내가 보살이어야 상대도 보살이 된다. 내가 야차(夜叉)같은 마음이면 상대도 내 앞에선 야차로 변한다. 내 뜻이다. 내가 사랑 받기를 바라는 상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뜻이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뜻이다. 내가 내 뜻대로 풀려나가기를 바라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내 뜻이다. 고로 사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 한다. 고로 대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를 대접해야 한다.

나는 예외요 남만 그러기를 바란다. 아아 그러저 지독한 이기심도 없을 것이다. 한편 나는 할만큼 했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이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내 뜻이 싫고 남의 뜻이 편하다는 자기 도피요 자기위안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의 대접이 나를 위한 대접이었다는 반증(反證)에 불과하다. 내가 나를 비우고, 버리고 사랑을 하면 물과 물이 섞이듯이 마음은 상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마음 법칙이다. 상대가 사랑 받을 것을 안하고 대접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실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상대를 내 고정관념의 틀에 맞추려는 아만일 뿐이다. 고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한생각으로 돌려야 한다. ‘언젠가는 나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지’, ‘나 또한 몰랐을 때는 그랬지!’ 하고 돌려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살이 되면 남도 보살이 된다.

협찬: 윤태섭 김미숙 윤지선 윤현성